

보도 일시	2022. 11. 24.(목) 09:00	배포 일시	2022. 11. 24.(목) 09:00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김경화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안소영 (044-203-3175)

한카타르 문화부 장관 월드컵 개막식 ‘드림머스(Dreamers)’ 공연 계기로 문화협력 확대해 나가기로

카타르를 방문하고 있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월 23일(수) 오후(현지 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의 카타르 문화부 청사에서 압둘라만 알 타니 카타르 문화부 장관을 만나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한양국 간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월드컵 개막식에서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부른 공식 주제가 ‘드림머스(Dreamers)’의 가사처럼, 카타르 월드컵은 스포츠와 문화, 건축, 정보통신(IT) 기술이 합쳐진 꿈의 제전으로 출발했다.”라며,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케이컬처와, 전통과 현재, 미래를 융합한 카타르 문화 간 교류 협력의 지평은 넓고, 그 확장 잠재력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알 타니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카타르 가수 파하드 알 쿠바이시의 월드컵 개막식 합동 공연은 한국과 카타르 간 문화예술 교류의 활기찬 장면”이라며, “한국과 카타르 사이의 문화예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양국 관계자 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한 코로나19로 진전되지 못했던 박물관과 도서관 분야의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